그리스 彫像에 나타난 服飾의 造形性 研究

- 드레퍼리와 주름을 中心으로 -

全 惠 晶

서울女子大學校 衣類學科 副教授

A Study on Plastic Characteristics in Style of Greek Statue's Clothing

- Concentrating on Drapery and Pleats -

Chun, Hei-Jung
Associate Prof.,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comprehend the internal meaning and the external form in style of Greek statue's clothing in the light of linked solution, and to compare the characterizations of style of Greek statue's clothing with those in Greek Art.

For these purpose, the theoretical studies about Greek art are preceded as a framework of this research, and then plastic characteristics of Greek statue's clothing and Greek art are analyzed by the documentary studies, For sources, photographs of Greek statue in Archaeological Museum and Louvre museum are used.

The result is as follows.

It is demonstrated that the characters of internal meaning in style of Greek art and Greek statue's clothing. The internal meaning of style of Greek art and Greek statue's clothing are as follows

- 1) Beauty of vital is subject that possessed life and movement and embodied dynamics or inherent power.
- 2) Beauty of moderation is subject that achieves some of its most impressive and practise a similar economy and restraint.
- 3) Beauty of character is subject that reveals the character of its wearer and has its own charm and distinction

The Greeks clarified beauty by looking for mathematical proportions. It is the interrelation of part with one another, and with the whole, together with the additional element of good colour, which constitutes beauty as perceived by the eyes. The beauty in style of Greek statue's clothing consists of a sense of geometrical pattern, oder, symmetry, proportion, and rhythm.

Key words: character(개성), external form(외적 형태), internal meaning(내적의 미), moderation(중용), vital(생동)

⁺ 본 논문은 2000년도 교내 연구비에 의함.

I. 서 론

고전주의는 유럽 문화의 가장 잠재력 있는 패션전통의 일부이다. 현대에 들어와 고전주의 세력은 모더니즘에 밀려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모더니즘이 쇠퇴하는 조짐이 나타나자, 고전주의가 다시 부흥되기 시작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多문화적 생활양태와 복합적인 가치관에 젖은 현대인들은 디자인의 요소가 고갈되자 과거를 새롭게 조명하고, 과거 복식 요소 특히 고전주의적 패션 전통의 본질과 가치가 재 정의되어 새로운 패션을 창조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고전주의에 대한 이해는 조형예술인 패션에도 가장 잠재력을 가진 요소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전주의적인 美의 근원인 고대 그리스 복식은 서 양 복식에 기반을 이루었고 과거의 디자이너 작품에 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또한 오늘날까지 패션 디자인의 기본요소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리스의 대표적인 의복이라할 수 있는 드레퍼 리와 주름형의 의복들은 뛰어난 예술성을 갖는다. 이 런 복식요소들이 로마에 계승되어 서양복식의 기원을 이루었다. 현대의 대표적인 패션 디자이너인 마드렌느 비요네(Madeleine Vionnet)1), 마리아노 포추니(Mariano Fortuny)2, 알릭스 그레(Alix Gres)3등은 고전주의 예술 에서 영감을 얻어, 그리스 복식의 핵심이라 할 수 있 는 드레퍼리와 주름기법을 사용하여 여성의 인체를 가장 승화된 형태로 표출하고 있는 사실에서 그리스 예술의 영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전주의 에서 특히 그리스 복식의 드레퍼리와 주름 기법은 패 션 창출의 근거로서 연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 과는 앞으로 현대 복식의 디자인 영역을 더욱 확충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서양 복식의 기저를 이룬 그리스 복식 중에서 특히 조상에 나타난 드레퍼리와 주름에 의해 형성되는 조형미를 고찰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연구내용은 그리스인들의 예술관 및 예술 특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찰하고 그에 따른 그리스 조상에 나타나는 복식의 조형성을 파악하고자한다. 연구 범위는 기원 전 5세기와 4세기의 그리스,

특히 페리크레스(Pericles)시대로 제한되었다. 왜냐하면 이 시대야말로 그리스 문화와 예술이 꽃피운 시대이고 '고전주의(classicism)'란 용어는 바로 이 시대의 예술 특성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대는 비록 대단히 짧지만 그리스 문화의 절정기로 인류사상 가장위대한 문화와 예술이 처음으로 그 완전함(greatest perfection)과 절정(culmination)을 보인 시대였다. 서양사에서 바로 이 시대의 문학과 예술을 '고전적' 내지고전주의라 구분되어지고 이후 서양 문화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그리스 문화 예술에 관한 문헌자료에 근거한 기초적 연구를 통해 이론적 틀을 세운다.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 예술의 특징들을 분석하고, 그리스 예술과 그리스적 美가 갖는 여러 특성들을 우선적으로 규명하는 것으로 이론적 논거를 세우려한다. 다음으로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루불(Louvre)박물관과 아테네 고고학 박물관에서 3차원 형태로 촬영한 사진자료를 분석하여 내적 의미와 외적형태를 규명하였다.

II. 그리스인의 예술관

그리스인들은 당시 어느 민족들보다 독창적인 정신 문화를 이룩했다고 볼 수 있다. 인류 최초로 이루어 놓은 철학과 예술적 업적은 물론이고, 각종 법이나 제 도 그리고 도덕과 관습들에서 그리스인들의 탁월성을 느낄 수 있다. 그리스인들은 투명한 눈으로 우주 대자 연을 관찰하였고, 강한 추상력으로 위대한 예술작품들 을 만들었으며, 또한 공평무사한 정신으로 각종 법이 나 제도를 제정했다. 그들은 자연과 인간세계를 신비 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냉철한 이지적 사고를 통하여 해석하려 하였다.⁵

신들의 조상에 나타난 상상의 미는 신적인 강함과 능력을 갖는 미이며, 중만하게 비축된 힘들과 잘 통제 된 정서를 나타내는 아름다움이다. 올림포스 신전의 메토페(metope)에는 아테네가 헤라클레스를 도와 하늘 을 떠받들고 있는 조각(그림 1)이 있는데, 여기서 아테 네 여신은 이일을 긴장하거나 노력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쉽게 하늘을 떠받들고 있다. 비록 신들이 자신들 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냉혹한 행동을 하고 용서하지 않은 정신을 나타낼 때까지도, 신의 조상들은 그 얼굴이나 몸짓에 어떤 감정 표현이 없는 부동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⁶⁾

그리스 예술가들은 주제가 신이든 인간이든, 존귀하던 비천하던, 비극적이든 연회적이든, 영웅적이든 외설적이든 간에, 그 주제의 본질적 본성을 투명하게 표현하려 하였다.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다가오는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은 보다 높은 등급의 존재로부터 유래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항상 잊혀지지않고 생각나는 존재를 충분하게 의식하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을 다루어야한다고 그리스 예술가들은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에서, 사소하거나 부수적인 것을 벗겨내고, 그내적 힘과 그 자체로 사물의 중심 존재에 속하는 것에 집중하고, 주제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사실상 오늘날 美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은 그리스 인들의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로 그리스인 들은 예술에 접근하였다. 美가 명확한 의미로 정의될 수 없음을 우리도 시인하듯이, 그들도 그 점을 알았다. 그래서 '美는 울타리를 새 나간다.'라고 플라톤이 말 했을 때, 그는 아름다움에 대한 일상적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름다운 것을 볼 때 美를 인식하였다. 더구나 그리스인들은 그



<그림 1> 천구를 메고 있는 헤라클레스, N.S. Greek Art, p. 218.

러한 美가 없는 詩는 詩가 갖는 어떤 목적도 이룰 수 없음을 확신하였다.8 그리스인들에게 美가 무엇을 의 미했는지를 분석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즉 美는 각 사람마다 변하는 그러한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물의 본성 속에 영속하는 어떤 것, 즉 보편적인 성질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과 예술가들 이 이런 보편적 성질을 설명하며 구현한다. 그리고 볼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지닌 자는 누구든지 접할 수 있는 영역에 그러한 보편적 성질이 있다고 그리스인 들은 믿었다. 특히 그들은 미가 갖는 특성을 빛에 비 유하기를 좋아했는데, 이는 그리스의 투명한 날씨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이런 빛과 같 은 美가 갖는 신비스런 힘을 지닌 보편적 성질의 아름 다움은 그자신의 실재를 갖으며, 어떤 이의 관심을 사 로잡을 때, 갑작스런 조명으로 그에게 아름다움을 드 러낸다고 생각했다.9

Ⅲ. 그리스 예술의 조형성

그리스인들의 그림과 조각 같은 시각예술은 지나친 사실주의나 통속적인 표현을 피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초연함과 거리감이라는 효과를 얻고있다. 비록 생동하 는 장면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소재를 다룬다고 하여 도, 그리스 예술가들은 그런 생활 장면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노리고 있다. 이처럼 초월적인 어떤 것을 주목하지만,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적절하고 의미 있다 고 여기는 것을 선택하여 이를 드러내려 하였다. 기원 전 4세기 예술론을 공들여 만든 플라톤은 詩와 그림 그리고 조각에 똑같이 그러한 이론을 적용하였다. 그 리고 플라톤은 詩와 시각예술 모두 서로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다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런 예술의 사회 적 윤리적 쓸모를 같이 고려하였다. 델퓌의 마부의 옷 (그림 2)이나, 루도비지 왕좌(그림 3)에 그려진 부인네 들의 옷에 나타난 긴 주름은, 비록 어떤 극적인 요소 나 열정조차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기이하게 표현되 어 있어 빨아드리는 듯한 재미를 주고 있다. 일상적으 로는 주목하지 않는 무생물적 요소가 이들 작품에서 새로운 조화로 나타나고, 이런 조화를 통해 새롭게 어 필하고 있다. 인간적 주제마저도 자체적으로 반드시흥미롭거나 이상하게 표현되지 않았다. 그리스인들은 보통사람들이 정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초월적인 어떤 것, 즉 美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려 하였다. 비록 그것을 변하는 현상세계 너머 어떤 지속하는 실제와 관계시키기는 했지만, 詩와 예술에서 이처럼 일상인들이 통상 보지 못하는 것을 美로 표현하였다.¹⁰

1. 그리스 예술의 미적 특성

그리스의 예술의 미적 특성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생동미

그리스인들의 주된 관심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 예술의 주된 목표는 이 살아있는 것들을 그 본질적인 본성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예술이 어느 의미에서 모방(mimesis)이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 주장에 그리스인들은 일반적으로 동의하였다. 조상에 대한 일상적 말은 eikon인데, 이 말은 말 그대로 '비슷함' 이나 '影像'을 의미한다. 히포크라테스가 '조각가는 신체를 모방한다'라고 말할 때, 그는 당시 그리스의 일상적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그렇지만 모방은 모호한 말이다. 모방으로서의 예술은 생동하는 원형에 비슷한 像을 창조하는 이상의 것은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진정한 모방은 원형(본)에 비슷한 것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예술가가 있을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작업이다.'')

모든 예술은 주어진 다양한 가능성들 중 어떤 선택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리스 예술가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또 어떤 것을 거절했는지 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스 예술은 좁은 의미로 자연과 현실에 대한 사실적 모방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음 두 가지 증거에서 분명하다. 첫째로, 그리스 예술가들은 인간들이 볼 수 없는 신들과 괴물들을 자주 묘사한다. 이점에서 어떤 사실적 의미의 모방이 아니다. 예술가는 신이나 괴물이 무엇이 되어야하는 지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구현한 것이다. 만약에 신에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힘과 美를 집어넣는다면, 그리고 이를 인간 존재

에 대한 관찰에서 이끌어낸다면, 신은 아직도 한 인간을 모방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세계에 있는 이질적인 특징들이나 팔 다리들을 결합하여 괴물들을 가능한 괴물답게 만들었다.¹²⁾ 둘째로, 그리스 예술가들은 일상적 관찰자에 나타난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간 존재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속에 있는 가장 흥미 있고 중요한 것에 대한 어떤 느낌으로 인간존재를 묘사하여, 그리스 예술은 이집트인의 유연하지못하고 기계적이고 경직된 전통적인 공예에서 볼 수없는 신축적이고 동적인 요소를 접목 시켜 미학적으로 직절한 관계 시스템을 이룬다.¹³⁾

2) 중용의 미

그리스 예술가들이 괄목할 정도로 자유분방했음은 소크라테스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당신이 美의 유형들을 묘사할 때, 완벽한 모델을 찾 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인체의 가장 아름다운 여 러 부분들을 결합하여 전체 像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 들어야 한다.' 화가 파라시우스도 이런 말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아14, 당시 예술가들이 자연을 모방하였다지 만 결코 있는 그대로의 모방이 아닌 자유로운 상상에 의해 치우침이나 과부족 없이 가장 적절한 중용의 미 를 표현하였다. 즉 그리스 예술가들은 어느 시대보다 자유로운 태도로 치우침이 없이 예술 작품을 표현하 였다. 그래서 모델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야 한다 는 의무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인간 존재를 돌로 조각하거나 색채로 묘사할 때, 예술의 본성이랄 수 있 는 자유로운 창조성을 그리스 예술가들은 잘 구현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각가 폴뤼그노투스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다 더 좋게' 묘사했다고 전해진다.15 여기서 비록 '더 좋게(더 낫게)'라는 말이 모호하지만, 그가 인간을 좀더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조각은 폴뤼그노투 스가 인간들에서 최선의 것을 추출하여 그대로의 모 방이 아니라 지나침이나 과부족 없이 가장 적절한 아 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개성 묘 사 기술로 유명했던 폴뤼그노투스는 초월적 존재를 창조하는 기술을 통하여 중용의 미를 표현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플뤼그노투스는 주제 대부분을 가 장 사실 그대로 보여주려고 시도한 것처럼 보인다. 기 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 예술에서도 이러한 정신이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 조 각가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3) 개성미

그리스인들의 복식에서 나체가 청년들의 것이라면. 정장은 젊은 여자를 위한 것이다. 헤라가 제우스를 매 혹하기 위해 어떻게 옷을 걸쳤는가를 호머가 재미있 게 말한 것처럼, 그리스 조각가들은 치장한 정장을 입 은 여자를 대리석으로 묘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여자의 나체가 갖는 매력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렇 지만 정상적 관례는 여성 대리석 조상에 적합한 정장 을 충분하게 이용하여 여성의 육체의 미를 은밀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일상적으로 여성들 은 정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스파르타에서만 벌거벗고 운동경기를 하는 소년들과 유사하게 소녀들 도 허벅지를 들어내며 운동하는 것이 관습이었지만, 대부분의 폴리스에서는 여성들의 육체노출이 허용되 지 않았다. 여성들의 조상들이 공공 장소에 놓여지기 도 하였으므로, 올림포스 신들과 같은 고상함을 이들 조상들도 보여야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테네 의 아크로폴리스에서 출토된 여러 처녀상(korai)들은 조상의 크기, 머리 모양, 흐르는 선의 유형들, 그리고 색채 등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올림 포스 신상들 못지 않게 숭고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여성 조상들의 공통된 모습은 像들이 곧추서고, 오른 팔을 곁에 부치고 왼팔은 사과와 같은 어떤 제물을 앞 으로 내보이며, 대지까지 내려뜨린 옷을 입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1) 목·머리·어깨, 그리고 팔 등 이외에 는 여성의 어떤 신체도 노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렇게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각가는 마치 나체의 여성 상을 그리는 것처럼 아주 신중하게 작품을 제작하였 다. 다시 말한다면 드러난 것들 만으로도 젊은 여성의 육체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상상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다. 그러나 더 이상의 신체노출을 감춤으로서 적절한 품위를 지키는 분위기를 창출한 것이다. 이런 점을 이 루기 위해 그리스 예술가들은 옷에 특별한 중요성을 주었다. 옷은 걸친 자의 개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여자 의 매력과 특징을 드러낸다.16 고대 그리스 조각가들 이 이러한 점을 얼마나 잘 이해했을 지는 '아크로폴리 스'에서 출토된 코레상(그림 4)에서 잘 알 수 있다. 이 조상은 아주 젊은 소녀의 상인데, 소녀와 성숙한 여성 사이의 중간 모습을 그녀의 작은 가슴과 매력적이면 서도 자기 의식적인 품위에서 잘 느낄 수 있다. 그녀 의 머리는 산뜻하게 잘 손질되어 있고, 그녀가 착용한 옷은 정교한 주름도 없이 몸에 밀착되어 걸쳐있다. 이 조상은 약간 후기의 像인 에우티디코스가 봉헌한 코



<□림 2> 델포이의 전차병, 475년경 BC., N.G. Greek Art, p. 191.



<그림 3> 루도비지 왕좌, 470년 BC., C.M. Bowra, The Greek ex., 그림 28.



<그림 4〉 아크로폴리스에서 출 <그림 5〉 에우티디코스가 토된 코레상, 520년 경 BC., N.G. Greek Art, p.162.



봉헌한 코레상, 490년경 BC., N.G. Greek Art, p. 162.

레상(그림 5)과 비교가 된다. 이 조상이 보여주는 얼굴은 훨씬 개성적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이 작품의 조각가가 훨씬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이 여조상이 약간 더 나이를 먹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보다 이 여조상의 옷이 그녀의 외관에 잘 어울리게 주름진 것과 겹쳐진 주름으로 훨씬 더 꼼꼼하게 조각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상이 더욱 개성적으로 돋보인다는 점이다. 조상에 나타난 그리스 여성상은 그리스인들 자신들의 본질적인특징들을 잘 구현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 특유의 개성들을 표현하는 것이 여성들 속에 가장 특징적이고 가장 돋보이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리스 예술가들은 여겼다.

2. 그리스 예술의 외적 형식

일반적으로 그리스 예술에 나타나는 외적 형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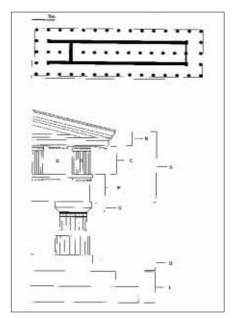
<그림 6>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400년경 BC., N.S. Greek Art. p. 248.



<그림 7〉 Attica에서 출토된 Kouros상, 610-600년경 BC., N.S. Greek Art, p. 115.

1) 기하학적 균형미

그리스 조각가들, 화가들, 건축가들이 예술작품을 창조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한 것은 도형과 그것이 차지하는 공간의 성질에 대하여 연구하는 기 하학적인 유형과 질서에 대한 예술적인 감각이다. 이 현상은 신전이나 각종 건축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파르테논 신전(그림 6) 기둥들은 수직 적으로 홈 주름이 있고, 차차 가늘어진 관 모양을 하 고 있다.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보는 이를 위해 섬세하게 조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기둥은 (자연스러운 시각의 왜곡으로) 안으로 오 목하게 들어가 보이지 않도록 엔타시스(entasis: 배흘 림) 처리로 중앙을 불룩하게 했다. 실제로 파르테논 신 전의 설계자들은 고전기 질서의 전형이 되는 완벽한 균형을 창조해내기 위해 '치밀한 개량'을 시도했다. 따라서 기둥의 경우에도 중앙을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오게 함은 물론이고 위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차츰 가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약간은 안쪽으로 기울여 놓



의 8> 위: 아플론 신전의 평면도, 테르몬, 630년 경 BC., 아래: 도리아식 기둥의 구성요소, N.G. Greek Art, p. 113.

았다. 이와 같은 정교한 변형은 제도판 위에 옮겨놓았 을 때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크기와 비례의 '객관 적인 균형'이 아니라 '현실적인 균형'을 목적으로 하 고 있는 것이다.17 비록 그 기둥들이 사실상은 가늘어 지지 않지만, 기둥 가운데 몸체가 부풀은 것처럼 보이 도록 눈을 속이고 있는데,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기 하학적 균형에서 오는 안정감을 준다. 또한 그리스인 들은 인간 像(그림 7)에 대한 표현도 기하학적 균형미 로 나타내고 있다. 젊은이를 나라의 기둥으로 보는 민 주제 도시 국가 속에서 폴리클레이토스는 네 개의 정 사각형으로 구성된 신체 개념을 창안하였으므로, 깔끔 하게 마무리된 남성의 신체는 도리아 건축의 구성 단 위처럼 예측이 가능해진다. 이는 장골 뼈가 건축물의 엔타블레이처럼 허리부분을 지탱하며 일련의 기하학 적 균형으로 비례를 형성하여 만족할 만한 형태를 얻 으려 했다.

2) 기능적인 구성

이처럼 기하학적 균형미를 우선시 한 그리스인들이 지만 장식을 기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건물의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보다 엄밀히 장식들을 조심스럽게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건물의 기 능을 중시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그림 8) 그러나 여 타의 곳에서는 장식을 애호하였다. 페디멘트(B), 메토 페(E), 그리고 내부 벽들 모두가 원형으로나 양각으로 된 조각들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조각이 선이나 곡면 의 본질적인 우위에 장애가 되도록 허용치는 않았다. 유일한 절충은 기둥머리 부분이다. 도리아적이든 이오 니아적이든 간에 기둥들에는 실로 장식이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기둥의 주두와 처마 사이에 있는 프리즈(C) 부분에 자리한 엔타블레이저(A)는 나무로 되어 있다. 주두(G) 위에 대들보가 얹히고 낮은 공간에는 채색 테 라코타 장식 판이 들어 있어 단순한 곡면이나 소용돌 이 무늬를 이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선들을 결합하는 것을 굳이 배제하지 않았다.18) 이처럼 그리스 건축은 우선 무엇보다 그 건축물의 기능성을 강조하였다. 신 전은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먼 거리에서도 자신을 알 아 볼 수 있도록 나타내고 있는 점에서 그리스인들은 비기능적인 장식을 배제하고 합목적적인 기능성을 강 조하는 아름다움을 중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3) 수학적 비례관계- 황금분할

기원 후 3세기 플로티노스는 예술에 관해 이렇게 말하였다. '아름다움은 시각적으로 좋게 지각되는 색 채와 더불어 전체와 부분들의 상호관계라는 것이 일 반적 견해이다. 바꾸어 말하면 가시적인 것들에 있는 美는 균형과 비례로 구성되어졌다.'19 아마도 이러한 이론은, 플라톤 이전 기원전 5세기 중엽부터 널리 인 식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은 우주 (cosmos)자체가 기하학적 비례관계로 이뤄졌다고 말 할 정도이었다20 기원전 5세기 후반에 유명한 조각가 로 활동한 폴뤼클리투스는 소책자 [규준 The Canon] 에서 이렇게 말하였다.21) '美는 요소들이 아니라, 부분 들의 비례로 구성된다. 즉 손가락 대 손가락의 비례, 모든 손가락과 손바닥의 비례, 이 손바닥과 팔뚝의 비 례, 그리고 팔뚝과 상반의 비례, 그리고 모든 부분들의 상호 비례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폴뤼클리투스의 전기에 어떠한 비례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 지만, 수학적 비례관계를 말한 것은 분명하다. 이는 신 들에서 인식될 수 있는 수학적 질서에 대한 찬사였다. 이는 또한 그리스인들이 인간에게서 가장 지속적이고 특징적인 성질들을 보려고 했을 때, 불변하는 신들과 의 밀접한 관계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연관, 우연적인 것과 본 질적인 것 사이의 연관,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 사이의 연관, 이러한 연관들에 대한 감각은 그리스 예 술에 지도적인 이념과 적절한 규칙을 제공하였다.20 또한 이러한 연관은 그리스 예술로 하여금 고양된 초 연함과 일관된 자기 충족적 조화를 갖게 하였다.

4) 조화

그리스 예술작품은 우리가 보는 것들과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것들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느끼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 예술은 그들(현상적인 것과 실재적인 것)이 하나의 통일을 이루며 또한 완전한 하나의 세계를 반영함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그리스 예술은 현상적인 것 넘어 있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창조물들을 일상적 무대에 알맞게 하기 위해, 예술가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예술작품의 실제성을 강조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제작과정에 가시적(일상적)인어떤 것도 회피되거나 건성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델케의 전차 모는 이의 옷주름들은 그 전차 안에서는 볼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름들(그림 2)은 주름의 성질들이 사실 그대로 표현되어생생한 감을 낳는다.

그리스 그림과 조각도 그와 유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 그림과 조각은 감상자들에게 긴장을 강요하지 않고, 마치 살아 움직이는 사물을 보는 것 같다. 이는 살아있는 존재를 그 본질적인 본성으로 묘사하려는 욕구의 표현이다. 이러한 예술은 솔직성과 단순성에 있어 거의 모든 이에게 호소할 수 있는 예술이었다 실로 그리스인들은 이처럼 나타난 것과 감추어진 것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예술에 나타난 웅장함도 세속적인 그로테스크한웅장함이 아니다. 이처럼 예술작품의 웅장함에서 그리스 예술은 세속적인 감각을 허용치 않고 선의 순수성과 조화의 중요성에 집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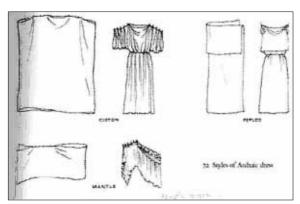
IV. 그리스 조상에 나타난 복식 조형성

그리스인들은 창조적인 예술성과 자유로운 정신, 소 재의 유연성을 이용하여 인체를 그대로 표현하는 드 레퍼리식 의상을 디자인하였다.(그림 9) 이것은 인체를 감싸기 위한 의상이었다. 재단이나 바느질을 하지 않고 인체를 따라 부채꼴로 퍼지거나 지그재그 단선을 만들면서 주름지는 히메티온(Himation) · 무겁고 직선형태의 울로 중후한 감각을 연출하는 도리아식 키톤 (일명 페플로스: Peplos) · 얇은 아마나 목면 소매 양쪽을 피브라(Fibura)로 고정하는 우아하고 섬세한 이오니아식 키톤 등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그리스의 다양한 조상은 예술가들의 상상과 기호를 시험하는 대상이었고 그리스 조상에 나타난 복식양식은 그리스예술가들이 그 시대의 미적 가치를 복식에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그리스 예술의 미를 구현한 그리스 조상의 복식양식의 조형성은 그리스 예술의 미적 특징과 외 적 형식을 근거로 각 그리스의 조상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그리스인들은 우주 대자연을 조화 내지 질서의 세계로 보았다. Cosmos란 말 자체가 '질서'를 의미하듯이 그리스인들은 맑은 공기 아래서 자연을 수호하고 질서·조화 있는 생활을 좋아하며 영위하였다.²⁴⁾ 즉 그리스인들은 우주 대자연을 조화 내지 질서 이상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그들 예술작품은 바로 자연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조화와 질서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수 있다.

Athena의 의상(그림 10)은 직선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인체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옷이 인체에 밀착된다 하더라도 인체의 흐름



<그림 9> Archaic Dress의 스타일, J.B. Greek Art, p. 87.











<그림 10> Athena, 4세기 BC., 국립 고고학 박물관 소장.

을 그대로 노출시켜 인체가 갖는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유지한다. 인체를 타고 흐르는 가슴선을 마치 인체가 그대로 살아 움직이듯이 그대로 표현하고, 의복의가장자리는 가장자리로서 인체와 의복은 혼돈되지 않는다. 아포티그마의 길이와 하체길이가 황금분할을 이루고 대퇴부에 흐르는 선이 인체를 자연스럽게 감싸전체적으로 기하학적인 균형을 이루며 각 부분들의드레이프된 재질이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고 기능적인면을 배려하고 있어 선의 순수성과 리듬의 조화가 집중되어 있다. 의복은 팔과 다리가 움직이는 대로 질서정연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면서 각 절차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인체의 생동미를 형성한다.

Artémis(그림 11)는 섬세한 린넨 주름의 키톤을 균형을 잡아 입고 있다. 허리 부분에 띠를 매어 여유분을만들고 두 번째 띠를 가슴에 매므로써 섬세한 주름을유지하도록 조작하였다. 상체에서 단선까지 길이를 분할하면서 적절한 비례를 유지하였고 피브라로 섬세한주름을 잡으며 린넨의 가장자리를 고정하면서 타원형의 구멍으로 소매를 형성하였다. 콜포스(Kolpos)의 부피감에서 느낄 수 있는 양적 무게감은 널찍한 히메티온을 어깨에 피브라로 고정시키면서 단선을 발목길이까지 늘어뜨려 불균형의 단선을 형성하므로 우측의

양감과 좌측의 면적이 동일한 무게감을 이루어 균형 감각을 창출하였다.³⁰

그리스의 의상은 전체 범위가 인체의 각 부분의 자연스러움과 그대로 연결되었다. 이것은 부드럽게 처리되어 거짓이 없는 솔직함을 들어내면서 인체의 기능성과 자연미를 조화있게 표출하려 했다. 자연스러움을지난 그리스인들의 절제된 열정은 조용함과 근엄함을이루고 균형을 잃지 않듯이 그들 복식양식도 자연의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면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생동미를 표현한다.²⁶⁾

페플로스를 입은 여신상(그림 12)의 드레이프된 재질과 감아 입는 옷은 확실히 여성스러움의 기원이다. 여성상은 자연의 어떠한 요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재질의 정교함과 섬세함에서 나타나는 음영효과로 인체에 어떠한 조작도 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다. 직조된 옷감의 우수성은 드레이프 안에 어떤 것도다 수용할 수 있는 무한함이다. 우아함은 장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부풀어 늘어진 콜포스ㆍ어깨에서 흐르는 듯이 감싸안은 가슴선ㆍ우측의 어깨에서 피브라로 히메티온을 고정하여 등을 타고 내려 좌측 팔로 걸쳐진 드레이프된 흐름선ㆍ우측 어깨에서 힘을 향해드레이프된 재질 등이 전혀 조작되지 않고 빛과 그림



<그림 11> Artémis, 400년 BC., Louvre 박물관 소장.



<그림 12〉 페플로스를 입은 장례복 차림의 여성상, 5세기 BC., 아테네 고고학 박물관 소장.

자의 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단순미에서 기인한다. 이 러한 옷은 입는 사람을 항상 차분하고 우아하게 인체 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적절하게 노출하면서 또한 전 체적인 범위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인체가 지 니고 있는 특징을 미적인 감각으로 승화시킨다. 이는 옷을 걸친 자의 개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여성의 매력 과 특징을 드러낸다.

그리스인들에게 美는 善과 동일시되는 도덕적 성격 을 지니고 있거나, 기하학적 비례와 동일시되는 수학 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 사실이다.27) 물질적이면서 정신적인 미(physical and moral beauty)의 개념에는 수학적 비례와 기하학적 균형의 미가 함축되어 있다 고 그들은 믿었다.

그리스인들은 인체에 잠재된 균형과 조화를 날카롭 게 파악한 감식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많은 점 을 감식하였다. 그리스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분들의 합계 이상의 전체적인 모습이었다. 기하학과 해부학은 하나 같이 인체에 감추어진 기하학적 균형과 수학적 비례관계를 찾아 인체가 갖는 신비를 해명하려 하였 다. 이처럼 그리스 예술에서 수학적 비례관계가 지배 적이였다.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아름다움은 좋은 색 과 전체와 부분들의 상호관계에서 오는 균형과 비례 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가시적인 것들에 있는 美는 균형과 비례로 구성되어졌다. 비례의 중요성은 건축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리스적 美는 요소들이 아 니라, 부분들의 비례로 구성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전체적인 복식의 조화에서 수학적이며 합리적인 정신 과 복식 미를 나타내려 하였고, 또한 미적인 표상, 선 천적인 이상,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려 하였다.28) 이 들은 드러난 것들로부터 젊은 여성의 육체에 대한 정 확하고 충분한 상상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더 이상의 것을 감춤으로서 적절한 품위의 분위기가 확보되는 것이다.

코레상(그림 13)은 키톤 위에 히메티온을 걸치면서 우측과 좌측으로 드레이프 된 재질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규칙적인 단선을 이루고 있다. 히메티온 우측의 단선 길이는 대퇴부에서 양감 있는 주름이 풍 부하게 떨어지고 인체 아래의 윤곽선을 뚜렷하게 부 각시키고 있다. 키톤에 새겨진 프린트 문양은 좌측 단 선의 경계를 분명히 나타낸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의 무게감이 비대칭을 이루고 있으나 각각의 중량감이 균등한 감각을 표현하여 인체의 미를 기하학적이고 수학적인 비례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조상의 옆 면에 드레이프된 재질은 동일한 간격과 량으로 균형 을 이룬다. 이런 점이 그리스 복식의 특성을 더욱 부 각시킨다.

왕관을 쓴 신의 조상(그림 14)에서 히메티온이 균등 한 간격으로 수학적인 비례를 유지하면서 직선으로 떨어지는 단선의 위치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 나 키톤의 드러난 표면의 넓이와 문양이 각각 지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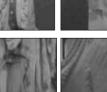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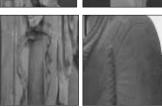












<그림 13> 파로스 섬산 백색 대리석으로 만든 Kore, 6세기 BC., 국립 고고학 박물관 소장.

<그림 14〉 왕관을 쓴 신, 530년 BC., 국립 고고학 박물관 소장.

무게감은 비대칭적인 균형을 이룬다. 키톤이 드러난 면적과 문양의 크기는 히메티온의 가장자리가 어깨를 타고 드레프된 재질과 형태와는 다르나 동일한 무게 감을 나타낸다. 옆선에서 드레이프된 히메티온의 단선 은 균형을 이루고 우측 어깨에 밀착된 재질은 인체의 특성을 드러내 개성미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절제된 양식으로 처리되어 중용의 미도 나타난다.

페플로스를 입은 코레(그림 15)는 아포티그마 (apotigma)의 길이가 어깨넓이와 황금비율을 이루고 허리띠로 여며지면서 직선으로 떨어지는 두 개의 주 름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수학적 비례를 이루어 표면에 단순한 형태를 이룬다.

Attic 코레(그림 16)는 키톤·페플로스·히메티온을 착용하였다. 히메티온이 어깨를 타고 떨어지는 가장자 리의 직선과 페플로스의 허리띠는 나란히 떨어지면서 직선을 이루면서 좌우의 균형을 잃지 않았다.

Athèna조상(그림 17)은 페플로스와 키톤을 겹쳐 입 어 모직 페플로스와 린넨 키톤이 대비효과를 나타냄 과 동시에 색상의 미묘한 효과가 나타난다. 오른쪽 다 리에 벌어진 틈으로 나온 린넨 키톤은 질감의 대비적 인 느낌까지 표현하였다. 밝은 흰색 키톤과 강렬하거 나 파스텔톤·또는 추상적인 기하학적 장식의 양모로 된 페플로스는 미묘한 대비효과를 나타낸다.29 이는 전체적인 의복 형태와 부분이 기하학적 균형미로 상 호관계를 처리한 결과이다. 드레이프된 의상을 입은 젊은 여성(그림 18)은 손톱으로 주름을 잡은 키톤을 입었다. 상의는 직물 위로 가죽끈을 매어 콜포스를 형 성하고 허리띠에서 공간의 여유를 두고 다시 가죽끈 을 경쾌하게 드리운다.30 천의 가장자리는 둥근 피브 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고정시켜 타원형의 틈을 이 루면서 소매통이 드레이프되며 떨어진다. 히메티온이 란 망토는 왼쪽 어깨 위에서 사각형의 린넨 모서리가 떨어지면서 등을 비스듬하게 지나 오른쪽 허리를 타 고 사선의 주름을 만들면서 정강이 위에서 자유로이 처리된다. 이때 오른쪽 무릎이 나온 부분에서 재질이 당겨지면서 주름형태가 대각선으로 만들어진다. 상체 의 잔주름과 하체의 주름형태는 표면효과가 양분되면 서 적절한 황금비례를 이루어 중용의 미를 표현한다.

코레상(그림 19)은 이오니아 키톤과 수직선으로 주 름을 새겨 대각선으로 처리한 히메티온을 착용한 형 태이다. 이는 비치는 듯한 린넨으로 인체에 밀착하여 착용자의 둥근 어깨선·넓직한 가슴선·약간 볼록한 아랫배 등의 인체 특성을 들어내지만 그이상의 자세 한 표현은 절제되어 인체의 개성미와 절제되어 과하



<그림 15> 페플로스를 입은 코레, 530년 BC., 아테네 고고학 박물관 소장.



<그림 16> Attic 코레상, 580-570년 BC., 아테네 고고학 박물관 〈그림 17〉 Athèna, 440년 BC., 소장.



Louvre 박물관 소장.



그림 18> 드레이프 된 의상을 입은 젊은 여성,440년 BC., Louvre 박물관 소장.



(그림 19) Naxian 대리석으로 된 Kore 상, 570-560년 BC., 아테네 고고학 박물관 소장.

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중용의 미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인들은 인간상에 대한 표현을 기하학적 질 서·면과 면 사이에 이루는 대비적인 효과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잃지 않았다. 즉 인간상들이 균 형과 질서의 시각으로 이루어지는 배열이였다. 이는 그리스의 예술가들이 예술의 본성인 자유로운 창조성 으로 전체에 여러 부분들을 결합하여 치우침이나 과 부족이 없이 떳떳하며 알맞은 상태로 중용의 미를 이 루었다.

이러한 고전시대 이후로 인체의 유기적인 동작과 치수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드디어 헬레니즘시대에는 인체의 길이가 길어 보이는 현상을 복식을 통해나타내었다. 키톤의 착용법도 다양하였는데, 착장의 주안점은 허리끈으로 다양한 비례를 연출하는 것이었다. 도리아식 키톤의 아포티그마를 머리에 둘러 쓴 형태로서 착용자의 표현의지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지닌다. 복식을 착용하는데는 일정한 법칙을 따르기 보다 각자의 개성과 심미적 감각에 따라 입었으며 그 시대에 나타난 비례도 기능적인 끈의 위치가 장식적인요소로 변환되면서 다양한 비례미가 창조될 수 있었다. 또한 복식은 인체의 움직임을 그대로 수용하면서기능성을 잃지 않고 빛과 그림자의 조화를 적절히 조

절하여 마치 인체가 살아 있는 듯한 생동미까지 창조할 수 있었다.

V. 결 론

본 논문은 서양 복식의 기저를 이룬 그리스 복식의 드레퍼리와 주름에 의해 형성되는 조형성을 고찰·분 석하기 위하여 그리스 예술의 미적 특성과 외적 형식 을 파악하였다.

그리스인들은 인류 최초로 철학과 예술을 이룬 미적 감식가였다. 그들은 자연과 인간 관계를 신비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냉철한 이지적 사고를 통하여 해석하였다. 그들은 美의 의미를 주관적인 감성이 아니라 사물의 본성 속에 영속하는 것, 즉 보편적인 성질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초월적인 어떤 것 즉 美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려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성된 그리스 예술의 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 예술은 신축적이고 동적인 요소를 접 목시켜 미학적으로 적절한 관계 시스템을 형성하여 생동 미를 나타낸다.

둘째, 그리스 예술은 자연을 모방하였지만 결코 있는

그대로의 모방이 아닌 자유로운 상상에 의해 치우침이 나 과부족 없이 가장 적절한 중용의 미를 나타낸다.

셋째, 그리스 예술은 나체의 여성상을 드러낸 것처럼 아주 신중하게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의 신체 노출을 감춤으로써 적절한 품위를 지키는 분위기를 창출한다. 그 결과 옷은 걸친 자의 인체의 특성과 동시에 여성의 매력을 드러내는 개성미를 나타낸다.

그리스 예술의 미를 형성하는 형식은 크기와 비례의 '객관적인 균형'이 아니라 '현실적인 균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인들이 기하학적 균형미를 우선시하지만 비기능적인 형태는 배제하고 합목적인 기능성을 강조하는 美를 중시한 결과이다. 또한 그리스인들은 美를 전체와 부분들의 상호 관계라 여겨수학적인 비례 관계 즉 황금 분할을 근거로 우연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 사이의 연관 관계를 조절하여 그리스 예술의 초연함과 연관된 자기 충족적 조화를 이루었다.

이상에서 그리스 조상의 복식양식은 예술의 조형성 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스 조상에 나타난 복식 양식은 면과 면 사이에 이루는 대 비적인 효과를 기하학적 균형 · 수학적 비례 등으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중용의 미를 창출한다. 특히 키 톤의 착용법에서 허리띠로 면과 면사이의 다양한 비 례를 연출하여 자유로운 움직임을 포용할 수 있는 기 능적인 효과를 동시에 연출하여 수학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하였다. 드레퍼리와 주름은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곡선을 자연스럽게 드리워 빛과 그림자의 관계를 효 율적으로 나타내어 기능적인 면과 동시에 살아 움직 이는 듯한 생동미를 창출한다. 리넨과 울 등의 재질이 인체의 선을 그대로 노출하지만 재질과 인체가 조화 를 이루어 인체의 특성을 절제된 표현으로 나타낸다. 또한 재질에서 나타나는 대비 효과는 기하학적 균형 을 표현하고, 착용자의 표현 의지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아포티그마는 착용자의 개성과 심미적 감각을 발휘하여 다양한 개성미를 창출한다. 그리스 조상의 복식에 나타난 생동미, 중용의 미, 개성미가 각각 독립 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美가 혼재하여 그 리스 복식의 미를 이루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그리스 복식 양식의 조형성을 규명하기 위해 그리스 조상에 나타난 드레퍼리와 주름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조상에 나타난 형태에서 규명된 조형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회화, 도자기, 공예 등에 나타난 그리스 복식의 조형성을 규명하는 것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1) Demornex Jacqueline, Madeline Vionnet, Rizzoei, NY, 1991, p. 61.
- Guillermo De Osma, Fortuny, Rizzli, NY, 1994,
 p. 84.
- 3) Boucher Fran ois, A century of Fashion, Thames & Hudson, Lond., 1999, p. 116.
- 4) Dominique Secretan, 고전주의, 강대호 역, 서울 대학교 출판부, 1984, 머리말.
- 5) C. M. Bowra, The Greek Experience, A mentor Book, Oxford, 1957, p. 159.
- 6) 앞 글, p. 59.
- 7) 앞 글, p. 159.
- 8) 앞 글, p. 138.
- 9) 앞 글, p. 171.
- 10) 앞 글, p. 138.
- 11) 앞 글, p. 159.
- 12) 예컨대 말의 몸체 와 인간의 머리를 결합한 페 가수스, 사자 몸체와 인간 머리를 결합시킨 스 핑크스 등이 그 좋은 예이다.
- 13) Boardman John, Greek Art, Thames & Hudson, Lond., 1996, p.199.
- 14) C. M. Bowra, 앞 글, p.160.
- 15) Polygnotus(기원전 475-447) 그리스 화가. Thassos 출신의 Aglaophon 의 제자. 그는 기원전 460년 경 스토아포이킬레에 'lliupersis' 를 그렸다.

- 16) C. M. Browra, 앞 글, p. 162.
- 17) Spivey Nigel, Greek Art, Phaidon, Lond., 1997, p. 247.
- 18) 앞 글, p. 114.
- 19) C. B. Bowra, 앞 글, P.169.
- 20) Platon, Timaeus, 31c ff.
- 21) C.M. Bowra, 앞 글, p.170.
- 22) 앞 글, p.169.
- 23) 백영자·유효순, 서양복식문화사, 경춘사, 1991, pp.86-87.
- 24) 전 옥진, 고대 그리스인의 복장 스타일과 건축 양식의 비교연구, 대한 가정학회, 제15권 2호,

1997, p. 11.

- 25) Plis et Drap s dans la statuaire grecque, Louvre, p. 27.
 - 26) R. Broby-Johansen, Body And Clothes, Denmark Published, 1968, p. 50.
 - 27) 리오넬로 벤투리(저) 김기주(역), 미술비평사, 서울 예술출판사, 1988, p. 56.
 - 28) 노용재, 그리스 조각에 나타나는 조형미의 미적 근거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 석사학위 논문, 1987, pp. 32
- 29) Louvre, p.25.
 - 30) Louvre, p.23.